

제주Utd, 올 시즌 대비 새판짜기 박차

선수 보강으로 전력 강화... 전북·울산과 우승 경쟁
안태현·최영준·윤빛가람 잇따라 영입 '화룡 점점'

제주유나이티드(제주)가 올 시즌을 앞두고 전력 강화를 위한 새판 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12월 전력 보강을 위해 '멀티 플레이어' 안태현을 영입하며 2022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달들어 새로운 중원의 엔진으로 미드필더 최영준과 윤빛가람을 잇달아 영입했다. 제주는 2

월까지 외국인 선수와 신인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다. 제주는 오른쪽 풀백뿐만 아니라 전술 운용에 따라 윙어, 윙백,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안태현을 빠른 공수 전환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남기일 감독의 축구스타일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 즉시전력감으로 평가했다. 최영준은 남기일 감독이 올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창민의 공백을 대비해 낙점한 선수다. 팬들 사이에서 'K리그 캄데'로 불리는 강인한 체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중원 전지역을 누비며 상대의 패스 줄기를 차단하고 역습의 시발점 역할까지 도맡는다. 여기에 윤빛가람까지 합류하면서 중원에 화룡점정을 더하게 됐다. 윤빛가람은 2020년 울산의 아시

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MVP)까지 선정됐다. 2021시즌에도 29경기에 출전해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간재함을 과시했는데 시즌 종료 후 타팀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친정팀 제주를 선택했다. 제주는 윤빛가람의 정교하고 치명적인 패스 줄기가 2021시즌 'K리그1 득점왕' 주민규의 뜨거운 발끝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해피뉴이어!” 2022년 1월 2일(현지시간) 텍사스 알링턴의 AT&T 스타디움에서 열린 댈러스 카우보이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NFL 경기에 앞서 치어리더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대결... 팀 허웅 vs 팀 허훈 '격돌'

프로농구 올스타전 팀 구성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맞대결할 '팀 허웅'과 '팀 허훈'의 최종 멤버가 확정됐다. KBL은 1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

리는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 팀 구성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올스타 팬 투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형제 허웅(DB)과 허훈(KT)이 드래프트를 통해 함께 뛴

선수들을 지명했다. '팀 허웅'에는 허웅과 한솔밥을 먹는 김종규, 박찬희(이상 DB)와 함께 김선형(SK), 라건아(KCC), 김낙현(한국가스공사), 변준형(인삼공사), 이관희(LG), 이대성, 이승현(이상 오리온), 이원석(삼성), 이우석(현대모비스)이 이름을 올렸다. 허훈은 자신과 함께 뛰는 팀 동

료 양홍석, 하운기(KT)를 비롯해 이정현(KCC), 최준용(SK), 문성곤(인삼공사) 김시래, 임동섭(이상 삼성), 이재도(LG), 서명진(현대모비스), 이대현(한국가스공사), 이정현(오리온)을 선택했다. 허웅과 허훈이 참여한 올스타 드래프트는 이날 오후 3시 유튜브 KBL TV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삼성·KCC 연패 돌파구 찾을까

프로농구 정규리그 반환점
주축선수 부상·반등 급선무

프로농구 2021-2022시즌 정규리그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서울 삼성과 전주 KCC의 연패는 해가 바뀌어도 이어졌다. 1최하위 삼성은 새해 첫날 선두 수원 kt에 졌고, 9위 KCC는 2월 2위 서울 SK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7일 원주 DB전에서 시작된 삼성의 연패는 10경기째 계속됐다. 현재 삼성은 6승 22패로, 9위 KCC(10승 18패)와도 4경기 차로 벌어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커녕 탈락해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이제 최다 연패 구단 기록인 2011년 11~12월의 14연패도 눈앞에 뒀다. 삼성은 지난해 10월 22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전부터는 원정 15연패에 빠져 있다. 원정경기에서는 종전 11연패를 넘어서 구단 최다 연패 기록을 계

속 새로 쓰는 중이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팀 KCC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KCC는 지난달 15일 창원 LG전부터 내리 7연패를 당하고 9위라는 낮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삼성과 KCC의 부진은 무엇보다도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주를 지나 12일까지 경기를 치르고 나면 KBL은 닷새간의 올스타전(16일) 휴식기를 가진다. 삼성은 7일 한국가스공사와 대결을 시작으로 9일 DB, 12일 현대모비스와 홈 3연전을 치르고 나서 22일 KCC와 원정경기로 리그를 재개한다. KCC는 8일 kt, 9일 LG와 홈 2연전 후 11일 DB와 원정경기에 나선다. 그리고 나면 19일 오리온과 홈 경기 때까지는 쏠지만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삼성과 KCC로서는 반등을 위해 '연패 사슬'을 끊는 게 급선무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전력 양극화' 완화 분위기

흥국·IBK 경기력 회복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다. 아직은 상-하위권 팀들의 격차가 뚜렷하지만, 하위권 팀들이 조금씩 경기력을 회복하며 차이를 줄여가고 있다. 비시즌 김연경의 중국 진출과 이재영-다영 자매의 이탈로 전력이 급감한 5위 흥국생명도 올 시즌 초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탔다. 주포 캐서린 벨(등록명 캐텔)과 김미연 '쌍포'가 공격을 원활하게 이끌었고 이주아, 김채연 등 젊은 센터들이 중앙에서 잘 버텼다. 수련선수 출신 세터 김다솔도 경험을 쌓으며 어엿한 주전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세터 조송화와 김사니 전 코치의 이탈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던 6위

IBK기업은행도 조금씩 정상화하고 있다. 최근 6연패에 빠졌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새 외국인 선수 달리 산타나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이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2위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폴세트 접전을 펼쳤다. 26일 1위 현대건설전에서도 치열하게 승부를 겨뤘다. 신생팀인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노선을 바꿨다. 얇은 선수층과 전력 문제를 인정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출전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 14연패 중인 페퍼저축은행은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하위권 싸움을 하던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이 정상화하면서 홀로 뒤처졌다. 그러나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은 여전히 간절하게 매 경기를 펼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아직 올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수 상

**2021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강 승 호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축산농협 임원 일동

고 문 택
(제주축산농협 이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축산농협 임원 일동

수 상

대통령표창

송 호 철
(대정읍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동향우회 회원 일동

수 상

대통령표창

송 호 철
(대정초 68회 · 대정읍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성 상 훈 외 회원일동